

해양관광매력물로서 마리나 경관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양위주 · 구본아*

† 부경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부산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The effect of marina landscape design to images

† Wui-Joo Yhang, Bon-A Gu*

† Dept. of Tourism Management,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n
*Green City Bureau,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usan 614-050, Korea

요 약 : 최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욕구 증대와 마리나 시설 확충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공간이 되는 마리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도 점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마리나와 관련된 해양관광분야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이른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매력물로서 마리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마리나 경관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연구대상지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마리나 경관의 인지적 이미지에 대하여 경관디자인의 기능성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징성은 인지적·정서적 이미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나를 비롯한 해안경관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제정시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해양관광, 해양관광매력물, 마리나, 경관디자인, 이미지

Abstract : *The more the need for coastal leisure and sports and the expansion of marina, the more the need for the studies about marina.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from the point of coastal tou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marina as a kind of tourist attraction and analyze the effect of marina landscape design to images. The findings of results suggested that perceived images were significant to the functionality of landscape design, however, emotional images were partly significant to the symbolicity of landscape desig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landscape regulations about marina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Key words : coastal tourism, coastal tourism attraction, marina, landscape design, 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우리나라의 바다와 바닷가는 3,170개의 섬, 11,542 km의 해안선, 2,393 km² 갯벌, 354개 해수욕장, 2,339개 어항, 3개 해상국립공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안역의 경우, 해안선에 연결한 10개 시·도 75개 시·군·구와 해안 및 인접한 내륙지역, 인근 섬을 포함하여 전국대비 면적은 31.0 %, 인구는 26.1 %, 지역총생산은 31.1 %를 차지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위치 등 최적의 물리적 환경도 구비되어 있다.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자연여건과 해양관광산업의 성장엔진을 가진 조선과 자동차 기술의 높은 지식 집약도 또한 뛰어난 기술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특히, 요트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대형선박 제조와 관련된 높은 기술력 및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를 넘어서면 요트 수요가 연간 30%씩 급성장해

왔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요트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해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단위의 레저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트산업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 전망은 기반시설인 해상레저스포츠의 전진기지가 될 마리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9년 관련 법령인 마리나법의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선박 건조와 상품개발, 제작 등 관련 산업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제정으로 인해 향후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더불어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 되어 우리나라의 해양관광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마리나 시설 확충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레저

† 교신저자 : 종신회원, wjyhang@pknu.ac.kr 051)629-5743
* 연회원, 9bonita@naver.com 010)4590-4865

스포츠의 거점공간이 되는 마리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도 점차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마리나와 관련된 해양관광분야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이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마리나가 해양관광목적지의 매력물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리나와 마리나를 위요하고 있는 마리나경관의 이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은 해양관광매력물로서 마리나경관의 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타 관광매력물과 차별화된 해양관광목적지 경관으로 인지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 구축과 경관디자인을 위한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리나인 수영만 마리나를 대상으로 마리나 경관의 디자인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마리나경관 디자인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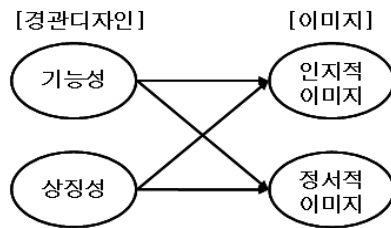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 마리나 경관디자인의 기능성 요인은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마리나 경관디자인의 기능성 요인은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마리나 경관디자인의 상징성 요인은 인지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마리나 경관디자인의 상징성 요인은 정서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2.1 마리나경관 평가

허준(2001)의 연구에 의하면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관평가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관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사진, 슬라이드를 이용한 물리적 경관의 시뮬레이션은 조망권역 및 조망각도의 제한, 입체감의 결여, 스케일감이 부족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unn, 1976; Shuttleworth, 1980; Stamps, 1990; 주·임, 1998). 최근에는 컴퓨터 매체 활용기법의 발달로 인해 컬러 슬라이드나 컬러사진이 주는 제약점을 극복한 Video,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리정보체계 등을 이용한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Ving·Orland, 1989; Brown, 1994; Lange, 1994; Oh, 1994; 서·김, 1998; 주·임, 1998; 서·윤,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경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기존 연구방법과 달리 동영상 촬영기법을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마리나의 경관을 가장 잘 대표할 장소를 선정하여 촬영을 한 뒤 영상편집을 통해 예비분석과정을 거쳐서 최종분량을 추출하였다.

2.2.2 경관디자인

경관디자인 평가요인을 위한 설문 구성은 기존 디자인 평가요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마리나경관 디자인에 적합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Archer, 1974; 이, 1989; 박, 1985; 구, 1998; 박, 1985; 위, 1998; 최·박·김, 2001; 형·홍·양·이, 2001).

2.2.3 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수영만 마리나의 경관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SD법(Semantic Different Method)에 의한 이미지 형용사들을 해양관광매력물로서 마리나 경관에 적합한 이미지 형용사들로 재구성하여,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문항으로 이미지 평가 항목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설문에 적용하였다(Baloglu·McCleary, 1999; Baloglu·Brinberg, 1997; Russel, 1980; Ong·Horbunluekit, 1997; 이, 1997; 박·고, 2002; 현·한, 2005). 평가의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3 조사 설계

2.3.1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이미지 요인 관련 항목 추출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미지 문항을 도출하여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일부 항목을 제거하고 추출된 최종 문항을 본조사의 설문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수영만 마리나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300부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한 67부를 제외한 24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2 분석방법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alpha) 계수를 구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평가 및 가설검증을 위해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3.1 해안경관과 마리나

해안경관의 구조는 수면, 자연 지형에 의한 스카이라인, 물가의 수제선, 도로축, 랜드마크, 바닷가에 형성된 지구 등이 있다. 특히, 해안경관은 수평적으로 넓게 퍼져있는 수면과 주변 경관요소의 시각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고(이, 1999), 내륙이나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관의 지역적 특색을 잘 표출하고 있다. 한편, 해양관광목적지로서 부산의 해양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이 외1인, 2008; 이, 2001)이면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거점이 되는 마리나 경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관광객의 동적활동에 대한 선호로 전국적으로 마리나 확충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를 통하여 마리나 경관에 대한 디자인과 이미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해양경관디자인

마리나 경관은 해양경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브랜드가 되며, 해양경관과 연관되어 해양관광목적지 전체의 이미지를 더 효과적이고 쉽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안 외 2인, 2007). 따라서 마리나가 해양관광목적지의 매력물로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물리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시설로서 마리나의 경관과 디자인을 접목시키려 한다.

3.3 이미지

관광지 이미지는 총체적으로 관광객이 목적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과 느낌(Crompton, 1979; Hunt, 1975)이다. Milman·Pizam(1995)은 관광지 이미지를 소비자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상품·경험에 관한 시각적·정신적 인상이라고 하였고,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강, 2007). 한편, Pike·Ryan(2004)은 관광지 이미지의 정확한 측정은 관광마케팅 관련자들이 관광객들에게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수정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노, 2008). 이와 같이 관광목적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대상 관광지를 더 많이 방문하게 하며, 아울러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지 선호도 또는 방문의도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Mayo, 1975)고 할 수 있다.

관광지 이미지 형성이론은 Gunn(1972)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가 시도된 이래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Gunn(1972) 이후로 최근에는 인지적 및 정서적 이미지에 의한 관광지 이미지 형성과정이 있다(현·홍·오, 2007).

일반적으로 관광지 이미지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들이 계층적으로 상관되어 전개되는 것이고, 인지적 이미지 요소는 관광지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등의 성질,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Baloglu·McCleary, 1999; Pike·Ryan, 2004)이고, 정서적 이미지 요소는 관광지에 대한 생각, 느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hen·Uysal, 2002; Kim·Richardson, 2003). Baloglu·Brinberg(1997)는 환경심리학에 의하면 환경과 장소는 인지적·정서적 이미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김·박, 2001). 또한, Baloglu·Brinberg(1997)과 Gartner(1993)는 관광지 이미지는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별되고, 두 이미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노(2008)의 연구에서는 관광지 이미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관광지 이미지 측정은 인지적 이미지와 감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측정하지 않는 한 정확히 측정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각 개념변수의 측정지표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으며, <Table 1>,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Nunally(1978)이 제시한 0.7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들이 신뢰성을 확보 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외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이 0.4이상이고, 요인들의 Eigenvalue가 1.0이상이며, 공통성과 누적된 분산설명력 또한 각각 0.670과 73.478% 이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각 요인으로 묶인 측정항목들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각 요인들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각 요인명은 '기능성', '상징성'으로 각각 3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내생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에서 각각 3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측정항목들의 공통성과 누적분산설명력 또한 각각 0.548과 69.375%이상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후 요인으로 묶인 측정항목들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각 요인들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인지적 이미지에 포함된 요인들은 '매력성', '편의성', '안전성'으로 정서적 이미지에 포함된 요인들은 '도회성', '안전성', '여유성'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ogenous variables

설문항목	상징성	기능성	공동성	Cronbach's α
시설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A1)	0.32	0.785	0.719	0.771
시설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되어있다(A2)	0.096	0.858	0.746	
친수활동 하기 안전하게 되었었다(A3)	0.347	0.722	0.642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한다(A5)	0.882	0.204	0.819	0.85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스타일이다(A4)	0.869	0.241	0.813	
참신하고 독특하다(A6)	0.773	0.27	0.67	
Eigenvalue	3.397	1.012		
누적분산설명률(%)	56.609	73.478		

신뢰성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ndogenous variables

설문항목	도회성	매력성	안정성	여유성	안전성	편의성	공동성
촌스러운-도시적인(C18)	.755	.243	.141	-.034	.120	.057	.769
토속적인-이국적인(C19)	.754	.104	.050	.043	.062	.005	.822
투박한-세련된(C15)	.740	.179	.134	.061	.137	.079	.791
저급스러운-고급스러운(C16)	.718	.187	.273	-.009	.133	.005	.658
단조로운-변화있는(C3)	.710	.286	.044	.121	-.013	.279	.634
예소한-웅대한(C22)	.693	.274	.209	-.122	.086	.111	.721
평범한-개성있는(C4)	.692	.335	-.028	.180	.003	.240	.548
흔한-독특한(C2)	.639	.351	-.002	.211	.036	.213	.775
해안경관이 아름답다(B7)	.271	.762	.069	.130	.088	.139	.807
해양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다(B9)	.238	.752	.162	.019	.250	.098	.792
지역특유의 매력이 있다(B10)	.243	.739	.081	-.020	.264	.081	.711
스카이라인이 아름답다(B8)	.209	.734	.106	.142	.033	.138	.743
자연경관이 아름답다(B6)	.203	.720	.150	.102	.094	.238	.720
문화적 매력이 풍부하다(B17)	.245	.689	.071	-.074	.155	.238	.627
축제·이벤트 등 문화행사가 다양하다(B16)	.339	.630	-.044	-.004	.082	.165	.643
어수선한-정돈된(C26)	.199	.124	.828	.183	.035	.027	.633
무질서한-질서있는(C25)	.128	.128	.823	.208	.059	.027	.777
위험한-안전한(C27)	.047	.021	.734	.146	.344	.098	.691
불안정적인-안정적인(C28)	.194	.122	.727	.193	.233	.088	.679
혼란스러운-평화로운(C8)	.074	.120	.161	.820	.155	-.039	.622
시끄러운-조용한(C7)	-.041	.011	.155	.812	.148	-.061	.681
분비는-한산한(C10)	.018	-.064	.156	.800	.188	-.128	.682
번잡한-아늑한(C5)	.162	.134	.174	.682	-.082	.130	.668
해양 레저스포츠를 하기에 안전하다(B13)	.144	.182	.188	.131	.814	.152	.588
시설물이용이 안전하다(B12)	.160	.226	.187	.133	.810	.148	.757
관광지로서안전하다(B11)	.082	.270	.190	.186	.783	.109	.563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다(B3)	.148	.193	.072	.019	.116	.844	.703
위락시설이 다양하다(B2)	.206	.314	.061	-.136	.123	.802	.688
휴식 및 휴양시설이 갖추어져 있다(B1)	.165	.287	.083	-.031	.169	.790	.625
Eigenvalue	10.086	3.581	2.168	1.714	1.339	1.231	
누적분산(%)	34.779	47.127	54.602	60.513	65.128	69.375	
Cronbach's α	.906	.903	.863	.831	.882	.877	

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제시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외생변수의 경우는 X^2 값(16.145)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적합도 평가지수인 RMSEA(0.065), GFI(0.978), AGFI(0.943), CFI(0.987) 및 IFI(0.987)으로 나타났고, 내생변수의 경우는 X^2 값(299.217)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다른 적합도 평가지수인 RMSEA(0.047), GFI(0.899), AGFI(0.868), CFI(0.964) 및 IFI(0.964)이 일반적으로 제시되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exogenous variables

요인명	항목	표준화된 요인적재값	S.E.	C.R.	합성 신뢰도	AVE
기능성	A1	0.803			0.884	0.628
	A2	0.664	0.103	9.250		
	A3	0.724	0.099	9.873		
상징성	A5	0.881			0.857	0.669
	A4	0.856	0.065	14.877		
	A6	0.702	0.064	11.954		
SMC		SMC기능성→상징성= 0.429				
모형의 적합도		$\chi^2=16.145$ df= 8 p=0.04 RMSEA=0.065 GFI=0.978 AGFI=0.943 CFI=0.987 IFI=0.987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endogenous variables

요인명	설문항목	표준화된 요인적재값	S.E.	C.R.	합성 신뢰도	AVE
도회성	C15	0.746			0.895	0.630
	C16	0.778	0.081	11.759		
	C18	0.809	0.090	12.233		
	C19	0.705	0.082	10.615		
	C22	0.757	0.089	11.439		
안정성	C25	0.848			0.879	0.709
	C26	0.875	0.080	14.487		
	C28	0.706	0.073	11.763		
여유성	C10	0.784			0.831	0.557
	C8	0.840	0.078	13.036		
	C7	0.812	0.082	12.691		
	C5	0.544	0.076	8.210		
매력성	B6	0.724			0.864	0.615
	B8	0.722	0.095	10.605		
	B9	0.852	0.101	12.360		
편의성	B1	0.801	0.104	11.728	0.898	0.747
	B3	0.788				
	B2	0.887	0.072	14.399		
안전성	B1	0.843	0.074	13.869	0.916	0.784
	B11	0.839				
	B12	0.859	0.071	15.363		
SMC	SMC		SMC정서1→정서2=0.183 SMC정서1→정서3=0.018 SMC정서1→인지1=0.372 SMC정서1→인지2=0.181 SMC정서1→인지3=0.151 SMC정서2→정서3=0.203 SMC정서2→인지1=0.148			
	SMC		SMC정서2→인지2=0.045 SMC정서2→인지3=0.204 SMC정서3→인지1=0.035 SMC정서3→인지2=0.002 SMC정서3→인지3=0.137 SMC인지1→인지2=0.333 SMC인지1→인지3=0.328 SMC인지2→인지3=0.171			
	모형의 적합도		$\chi^2=299.217$ df=194 p=0.000 RMSEA=0.047 GFI=0.899 AGFI=0.868 CFI=0.964 IFI=0.964			

고 있는 기준치를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agozzi·Yi, 1988).

둘째, 집중타당성을 요인적재값의 유의수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측정항목의 결정계수를 의미하는 SMC 값이 0.5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들을 제거하였다. 이 항목들을 제거한 후 다시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AVE는 일반적인 기준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였다(Fornell·Larcker, 1981). 또한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가 Hair·Anderson·Tatham·Black(1998)이 제시한 기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요인의 AVE와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Fornell·Larcker, 1981). 그 결과 <Table 3>, <Table 4>와 같이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제곱이 모든 경우에 AVE값들 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4.2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는 가설검증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우선 제시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541.398, p=0.000)$, RMSEA=0.052, GFI=0.864, AGFI=0.832, NFI=0.870, CFI=0.944으로 나타나 제시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가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인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1은 1%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어 해안경관의 기능적 특성이 강할수록 인지적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지적 이미지의 하위 요소들 모두에 기능성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매력성과 편의성보다 안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정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2는 5% 유의수준에서 모두 채택되어 해안경관의 기능적 특성이 강할수록 정서적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정서적 이미지의 하위요소들 중 도회성과 여유성보다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해안경관의 상징성이 인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3은 인지적 이미지의 하위요소별로 채택여부가 다르다.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인지적 이미지 중 매력성에 1%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쳐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높을수록 매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안경관의 기능성이 편의성과 안전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안경관의 상징성이 정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 4는 정서적 이미지의 하위요소별로 채택여부가

다르다. 해안경관의 상징성이 정서적 이미지 중 도회성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쳐 해안경관의 상징성이 높을수록 도회성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안경관의 상징성이 안정성과 여유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sults of hypotheses test

가설명	가설 관계	λ	S.E.	C.R.	p-value	채택여부
가설1-1	기능성→매력성	0.235	0.140	2.096	0.036	채택
가설1-2	기능성→편의성	0.434	0.155	3.624	<0.001	채택
가설1-3	기능성→안전성	0.342	0.199	2.555	0.011	채택
가설2-1	기능성→도회성	0.288	0.113	3.025	0.002	채택
가설2-2	기능성→안정성	0.507	0.151	4.400	<0.001	채택
가설2-3	기능성→여유성	0.639	0.142	5.218	<0.001	채택
가설3-1	상징성→매력성	0.361	0.088	3.331	<0.001	채택
가설3-2	상징성→편의성	0.102	0.093	0.926	0.354	기각
가설3-3	상징성→안전성	-0.108	0.118	-0.880	0.379	기각
가설4-1	상징성→도회성	0.549	0.075	5.648	<0.001	채택
가설4-2	상징성→안정성	0.178	0.088	1.729	0.084	기각
가설4-3	상징성→여유성	0.660	0.080	5.567	0.571	기각
모형 적합도	$\chi^2=541.398$ df= 329 p=0.000 RMSEA=0.052 GFI=0.864 AGFI=0.832 CFI=0.944 IFI=0.945					

주) λ 는 표준화된 경로계수값임

4.3 종합적 토의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이미지에 대하여 기능성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성은 매력성 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성 부분에 집중함이 필요하다. 둘째, 정서적 이미지에 대하여 기능성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징성은 도회성 요인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회성 요인에 대하여 상징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능성이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므로 우선은 기능성에 치중하되 상징성은 보조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경관디자인의 기능성은 인지적·정서적 이미지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이미지의 여유성과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은 경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경관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경관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인 경관시설과 설비에 대한 우선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경관디자인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디자인의 편리성, 접근성, 안전성이 고려 되어야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상징성은 인지적·정서적 이미지의 매력성과 도회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성과 도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매력물의 상징적인 부분(지역의 대표성, 지역적 고유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리나 경관 디자인시, 지역의 대표성, 지역적 고유성, 참신성을 반영하여 디자인 하여야 함을 제시한다.

5.2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해 마리나의 이미지 개선 및 해양관광매력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와 지역민의 레저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기 위해 마리나경관의 디자인을 평가하여 경관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양레저산업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리나 등 계류시설이 조속히 갖춰져야 하지만 시설조성시 마리나와 주변 경관의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토해양부의 마리나향 추진 계획에 의거, 향후 전국에 조성될 마리나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연구대상으로 마리나와 연관된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 조성된 마리나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리나를 비롯한 해양관광매력물을 바라보는 기존의 학문적 시각은 일반적으로 연안해역이라는 공간적 장소에 위치한 단위매력물로서 보다는 전체 해양관광목적지역을 평가하는 데 포함되는 구성요소로서 접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매력물 자체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해양관광물을 단위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기초적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단위 매력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마리나향만기본계획에 의거 향후 전국에 조성될 개별 마리나 개발시 마리나의 관광상품화와 관련하여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마리나를 비롯한 해안경관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 제정시 구체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부산 수영만 마리나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기초로 해양관광매력물의 특성을 살린 보다 정밀한 평가척도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는 앞으로 해양관광매력물의 연구발전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관디자인과 이미지와의 관계만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관계와 이용객들의 만족, 충성도 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K-2010-043)

참 고 문 헌

- [1] 고동우 (2004). 자기지역 이미지에 근거한 관광목적지 이미지 형성과정. 관광학연구, 28(2), 213-230.
- [2] 김선영 (2009). 도시 브랜드 이미지 형성요소로 본 공공 경관 디자인 고찰: 랜드마크시설의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69-79.
- [3] 박낙중 (2009). 도시관광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65, 635-646.
- [4] 어정연·여홍구 (2008). 도시재생측면을 고려한 수변공간 구성 연구. 국토계획, 43(4), 119-130.
- [5] 이한석·이명권 (1999). 부산의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경관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5(6), 15-24.
- [6] 임승빈 (1986). 경관분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16(1), 43-51.
- [7] 이희정·황재훈·박성근 (2008). 디자인과 도시 경쟁력: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1(2), 3-15.
- [8] Baloglu, S., & Brinberg, D. (1997). Affective images of tourism destin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4), 11-15.
- [9] Beerli, A., & Martin, J. D. (2004). Factors influencing destination im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657-681.
- [10] Hosany, S., Ekinci, Y., & Uysal, M. (2006). Destination Image and Destination Personal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 638-642.

원고접수일 : 2011년 4월 6일

심사완료일 : 2011년 6월 21일

원고채택일 : 2011년 6월 21일